



임실군장애인체육회, 2026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임실군장애인체육회(회장 임실군수)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췄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7일 임실군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임실군장애인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체육회장인 임실군수 주재로 진행되며,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임원진이 함께 당면한 장애인 체육회 현안을 조율하고 하반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새마을운동 장수지회, 취약계층 대상 김치 나눔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회장 장동영)는 8일 여름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엄마찬스·정성 가득 사랑의 열무 열매김치 나눔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행사를 실천했다

장동영 지회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장수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경찰서, 끈질긴 수색으로 실종 치매 할머니 구조

장수경찰서(이여정 서장)는 실종된 치매 할머니를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인력 60여명을 투입, 수색견과 열화상 드론까지 동원한 끝에 실종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이여정 서장은 휴가 중임에도 현장을 실시간 지휘하며, 수색견 2마리(경찰1, 소방1), 열화상 드론 2대(경찰1, 소방1)을 긴급 지원받아 배치했다.

장수경찰서(이여정 서장)는 실종된 치매 할머니를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인력 60여명을 투입, 수색견과 열화상 드론까지 동원한 끝에 실종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남원시보건소, 적극행정 유공 옥조근정훈장 수훈

달빛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 적극행정 성과 인정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보건소 심야약국 운영 등 지역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가 추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운영으로 연결한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남원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쉽지 않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지방의료원 기반 운영모형을 마련, 또한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한 진료·처방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내 소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양충모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아를 비롯한 필수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운영 이후에도 남원의료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함께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역시 인력 확보와 운영비 부족으로 지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2026년부터 운영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등 지역 의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남원시뿐 아니라 임실·순창·장수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권역형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경증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 분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지방의료원 기반 운영모형은 인구감소지역의 필수의료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업 운영 이후에도 남원의료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함께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역시 인력 확보와 운영비 부족으로 지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2026년부터 운영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등 지역 의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남원시뿐 아니라 임실·순창·장수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권역형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야간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경증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 분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지방의료원 기반 운영모형은 인구감소지역의 필수의료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양충모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아를 비롯한 필수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함께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역시 인력 확보와 운영비 부족으로 지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2026년부터 운영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등 지역 의료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취약계층 심장질환자 맞춤형 심장재활 지원

전북대학교병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장재활 치료를 받기 힘든 취약계층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장재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은 심장질환 환자의 건강 한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취약계층 심장질환자 맞춤형 심장재활 공공보건의료사업(Heart for ALL)'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재활의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전문적인 심장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심장질환자에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장 기능 회복과 재발 예방,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장재활은 심부전과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 또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급성기 치료 이후 전문 의료진의 관리 아래 운동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임상적으로 심혈관 사망률을 42% 줄이고 심부전 재입원율은 31%, 심근경색 재발률은 28%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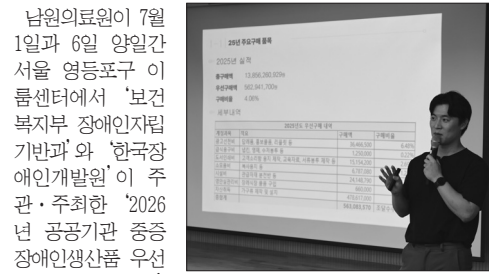
추는 등 재발 위험 감소와 신체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다.

전북대병원은 심폐운동부하검사를 통해 환자의 심폐 기능과 운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치료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심전도와 혈압,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해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대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폐운동부하검사 1회와 심장재활 치료 1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재활의학과 협진을 의뢰한 뒤 소속 기준 확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및 평가를 거쳐 맞춤형 심장재활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원의료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수사례 발표



남원의료원이 7월 1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주최한 '2026년 공공기관 증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정 의무구매 비율(1.1%)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지원하고 제도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지자체, 교육청 등 전국 50여 개 기관의 우선구매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 남원의료원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 자격으로 초청되었습다.

7월 1일 발표자로 나선 남원의료원 구매 담당자는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독려 활동과 수배전반, 가구, 사무용품, 의료 비품 등 다각적인 품목 구매 확대 성과를 상세히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소방서장, 화재 예방 현장 지도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7일, 남원시의 시장이 사매면의 자원순환시설인 (유)그린환경건설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고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자원순환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점검에서는 △폐기물 보관 및 적재 상태 등 화재 취약 요인 현장 확인 △폐기물 분리 적재 및 적정 보관량 준수, 장기 적치 방지 당부 등이다.

남원시의 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은 다량의 폐기물과 인화성 물질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진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평소 폐기물 적정 보관량 준수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내장상동, 누전 화재 피해 가구에 임시 거주지 제공

정읍시 내장상동이 지난 1일 전기 누전으로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기 위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생계 복구를 지원했다.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해 송령마을 경로당을 임시 거주지로 확정했다. 피해 가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참좋은사람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신영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직접 이불과 기본 생활품을 구입해 후원하면서 온정을 더했다.

김성순 회장은 "이끄는 정읍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속 대원 18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화재 진해와 타버린 가재도구 등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645-9935

중앙지사

010-9088-66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6-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8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인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